

2016년 1월 24일 주일 설교

와싱턴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 "제물로 사는 삶"(Living as a Sacrifice)

레위기 11:45

지난 주간에 우리는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identity)와 사명(mission)에 대한 지침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담긴 율법들은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정 (11 장), 성윤리에 대한 규정 (18 장),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여러 가지 율법 (19 장)이 포함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민자인 우리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차별과 거부와 무시와 냉대와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다르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별되게 살아야 할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레 11:45)**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런 고귀한 선택을 받았으니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어떻게 할까요? 읽기 어려우니 대충 읽어 넘길까요? 아닙니다. <레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읽기 어려워도 꼭 읽고 소화해야만 하는 책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요 1:29)** <레위기>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을 때 16장에 나오는 아사셀의 염소를 연상할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숫염소 두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는 번제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순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광야로 나가는 그 염소를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제물로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레위기>가 정한 부정한 사람들—죄인, 피부병 앓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장애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피하던 사람들,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깨끗하다고 판정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화폐를 통용하고,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흠여 버리시고 그들이 사용하던 상과 의자를 둘러

엮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오고 간 부정한 결탁에 분노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 해석은 유대교 문헌에 정통한 학자들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취한 행동은 "이제는 성전 제사가 중단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시위였습니다. 유대교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뿌리를 흔들고, 레위기에 규정된 제사를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끝낼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원천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면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다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능력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모든 민족을 구원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린 완전한 제사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벧전 2: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길입니다. 다시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 인생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로 나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제물로 사는 삶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제물로 드러질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물로 살기 위해서는 흠 없이 즉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이 씻김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과 말과 행실이 거룩해 져야 합니다. 둘째,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물로 살아가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마 16:24)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대해 죽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부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름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부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제물로 살아가는 삶에 날로 진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회자료> 2016 년 1 월 24 일 주일설교

**"제물로 사는 삶"(Living as a Sacrifice)**

레위기 11:45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216 장(통 356)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레위기 11 장을 읽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생각해 봅니다. (10 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레위기를 읽은 소감을 말해 보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하나와 깨달은 것 하나를 말해 보십시오.
  - 3) 레위기의 배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 4) 레위기의 배경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6.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 2)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211 장(통 346)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